

<http://cquest.sogang.ac.kr/>
Sogang University

CQUEST

Center for Quantum SpaceTime

- 센터 소장 인사 및 동정
- 센터 소식
- 연구원 동정
- 센터 기고
- 센터 운영 방향 및 논의
- 센터 주요 활동
- 센터 방문 연구원
- 국내외 학술 발표
- 국내외 출장 및 방문
- 논문 소개
- 4차년도 센터 구성원
- 알리는 말씀

01

센터 소장 인사 및 동정

1. 소장 인사말



2005년부터 시작된 양자시공간연구센터는 올 9월부터는 9년 활동 기간의 후반기로 들어갔다. 이어 내년에는 센터의 6차년도 기간으로 제2단계 평가도 받게 될 예정이다. 바야흐로 센터활동의 전성기인 중반부의 고개를 넘고 있는 것이다.

센터는 설립 후 세계적으로 연구를 선도해 나아가는 연구 결과 창출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핵심중 하나는 참여 교수들이 수행코자 하는 연구가 센터의 포스트닥 및 연구교수들의 활용을 통하여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센터의 유한한 인적 물적 자원이 자생적으로 경쟁력을 키워가는 연구분야에 집중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우수 연구분야의 예로서 우선 M2 브레인의 동역학을 기술할 것으로 기대되는 소위 Bagger-Lambert-Gustavsson 또는 ABJM 이론을 들 수 있다. 많은 센터 참여 교수들이 다양한 접근방법으로 이 분야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특히 이미 연구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고등과학원의 멤버들이 센터의 여타 멤버들과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업적을 이룩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였다. 또 다른 연구분야의 예로서 AdS-QCD 분야를 들 수 있겠다. 이 분야는 수 년 전부터 세계적으로 급속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향후 몇 년이면 기본적인 주요 결과들은 대체적으로 다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센터를 중심으로 적지 않은 인력이 이 분야에 관심을 보여 짧은 기간에 국내에서도 좋은 업적을 낼 수 있었다는 것은 센터의 커다란 공헌이라 하겠다. 하반기 센터의 운영은 경쟁력 있는 분야에서 보다 좋은 업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센터 출범이후 연구환경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한국연구재단으로 통합된 연구지원 기관을 통하여 연구과제에도 커다란 개편이 이루어졌다. 내용적으로 무엇보다 반가운 긍정적인 변화는 개인 연구비의 증대와 이에 따른 연구비 수혜의 저변확대라 하겠다. 개인 또는 몇 명의 공동연구과제의 수혜를 뿐만 아니라 각 연구과제별 지원액도 상향조정되었음은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다. 한편, 상대적으로, 새로 시작된 우수연구센터가 아닌 기존 우수연구센터의 지원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뿐만이 아니라, 하반기 마지막 2년여에는 국가의 지원이 10% 정도 감소할 예정으로 이는 센터 운영에 매우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센터 참여자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연구비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축소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수연구인력이 센터에 참여를 하고자 하는 동기는 더욱 약해졌다고 보이며, 우수연구자들의 협력을 이끌어 내어 센터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도 부담이 늘게 되었다.

